

영암 민선 7기 핵심전략산업 집중 육성

미래먹거리·신성장동력 창출...군민 행복시대 '성큼'
군정 최고 핵심분야 39개사업 세부 추진상황도 점검

전동평 영암군수는 군정 최고 핵심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신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그동안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민선6기 농부신 성과를 거둔 4대핵심전략산업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한층 발전시켜 39개사업을 확정하고 2,27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4대핵심산업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에 IT와 BT를 결합한 생명산업 ▲체류형 콘텐츠 집적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화관광·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 창출과 SKY관광을 선점하는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메카와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자동차튜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생명산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 비정선시설(국비 250억원)이 8월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유기농생산물 가공사업으로 전국 최대 규모(1,600ha) 유기농재배면적, 무화과산업특구(15개사업, 28억원)가 2018년 우수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사업소를 연초 개소, 발작물(고구마·콩·알타리 무우 등) 수확기 및 파종기 등 24종 138대를 운영하고 있다.
우수농특산물 마케팅 전략강화를 위해 대도시 직거래 장터(10회) 운영과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창업교육(21명)과 시제품 품질검사, 로고·포장디자인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분야에는 5년연속 국가축제로 지정된 왕인문화축제가 역대 최대인 100만명이 방문하는 대성공을 이뤘으며, 한국트레트가쇼센터는 11월 개관을 앞두고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 사업은 200억원 규모로 기본조사와 타당성 용역비 5억원(국비 2.5억원)을 확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기안밧길을 경관개선, 전망대 설치, 포토존, 수변공원 등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182개팀, 3,700여명, 전남 도단위 1,000개팀 2,000여명, 전지훈련 29개팀 661여명을 유치하여 우수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작년 10월 완공된 경비행기 이착륙장(800M)에서 본격적으로 파일럿 양성을 위해 지난 5월 경운대학교 Flying Center(비행교육원) 개소식을 가지고 학생과 교관 40명이 입주했다.

자동차튜닝산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606억원을 투입하여 국제공인 F1서킷과 대불국가산단 등 강점을 활용하여 자동차부품·튜닝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형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335억원)으로 산업위계대용 특별지역 사업 국비 40억원이 확보되어 기술개발 8개과제와 4개분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400억원)으로 기술개발, 영세기업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전동평 군수는 "미래 먹거리산업인 4대핵심전략산업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며 "민선7기는 토대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고 민선7기에는 화려하게 꽃피워 미래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이 고루 발전하는 풍요의 고장 일등영암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가 오는 7월 19일 개관을 앞두고 지역 출신 등 분야별 직원 채용을 완료했다.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조감도. /진도군 제공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일자리 창출

신규직원 193명 중 76% 지역출신 채용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인 대명그룹의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가 7월 개관을 앞두고 지역 출신으로 신규 직원을 대거 채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의신면 송군마을 일원에 건립한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가 오는 7월 19일 개관한다. 객실 576실의 규모로 1단계 개관을 준비 중인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는 타워콘도 와 오션빌리지의 휴양콘도미니엄, 관광비치 호텔, 식당,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리조트는 지난 3월 30여 명의 신입·경력직을 공개 채용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전문협력 업체인 ㈜두잉씨엔에스와 임대영업장인 ㈜퍼니지먼트 등에서 분야별 영업팀, 객실관리, 시설관리, 매니저 등

총 193명을 선발·채용했다.
이번 채용에서는 지역 직원 44명 중 35명(79.8%)이 진도에 거주하거나 지역 출신자이며, 전문협력업체인 ㈜두잉씨엔에스의 142명 중 관내 인력 105명(73.9%)이 채용됐다.
특히 ㈜퍼니지먼트에선 채용 직원 7명 전원을 진도군민이 선발되는 등 총 193명의 채용 인원 중 76%에 달하는 147명이 지역 내 인력으로 파악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의 개장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완도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
전북 국제인증·판로개척 눈길

완도군이 '2019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에 선정됐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 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후원한다.
각 분야에서 공감 경영에 앞장서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들의 우수 경영 활동 사례를 선정, 대한민국 대표 기업과 기관으로서의 혁신적인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모든 기업·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완도군은 자치행정경영대상 친환경도시 부문에서 해양치유산업 육성과 완도전복의 아시아 최초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ASC 획득, 완도산 수산물 해외 판로 개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완도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청정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관리팀'을 구성하고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응기를 운영해 해양폐기물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확대했다는 평가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청정바다를 가꾸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국 기자



김산 완도군수, 특별 작목 농가 현장방문
김산 완도군수는 직접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소통에 따른 의견들을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특별 작목 농가들을 현장 방문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 스마트팜 선도농가 지원 확대

김산 군수, 농가 현장방문 등 밀착행정 눈길

완도군이 지역 내 스마트팜 선도농가에 대한 지원을 넓히고 있다.
특히 김산 완도군수는 직접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소통에 따른 의견들을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농가들을 현장 방문하기도 했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시설원예 스마트팜 설치 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노지 양파 스마트팜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및 군비 6억원을 투입하여 21농가 32ha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군수는 올해 단독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시설을 설치한 일로읍 최한심 구아바 재배농가를 방문했다. 김 군수는 스마트 시설 및 재배현장을 둘러보고 재배경형, 판로확보 및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 일로읍 한 블루베리 재배농가을해 군으로부터 '첨단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각종 환경센서 및 제어 프로그램, 관비기 및 관수시설 등 복합환경제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군수는 "신심성·홍보성 지원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할 계획이다"며 "농민들도 스마트팜 도입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어 미래농업을 견인하는 정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도서지역 해상교통안전 확보'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안군 제공

서삼석 의원, 도서 해상교통 안전 토론회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개선·도서관 이동권 확보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도서지역 해상교통안전 확보'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서주민·관광객들은 안개 등 시계제한으로 여객선 장기간 출항통제와 운항 대기에 따른 불편사항, 출항 통제기준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을 진단해 입법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개선을 통한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 방안과 해양안전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열렸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 안전은 어디서나 최우선의 가치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도서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편리하게 해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진도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진도군 고군면은 최근 고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인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통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

일자리 사업 근무 지침과 활동일지 작성요령 ▲진절교육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교육 ▲폭염, 미세먼지 등 대응요령 등 야외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영암 금정면지사협 반찬나눔

영암군 금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를 돌보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반찬과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고재남 민간위원장은 "지역민이 심시

일반 모은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감동을 받았다"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금정면이 될 수 있도록 금정면협의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대한노인회 강진지회, 청와대 방문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회원 45명은 최근 역량강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회원들은 청와대 홍보관 견학을 시작으로 녹지원, 경무대

터, 구 분관 터, 영빈관, 사랑채, 칠궁 등 다양한 장소를 둘러봤다.
박종득 회장은 "청와대 방문 기회가 적은 노인 회원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